



## 중학생들 첫 전시... 대나무정원서 푸른 꿈 키우다

대나무 사이로 스며든 봄빛 아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감각들이 조심스레 관람객을 마주한다. 붓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캔버스와 투박하지만 담백한 형태의 입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화려하거나 완결된 작품은 아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는 감각이다.

예비 미술인들이 자신의 작업을 세상과 처음으로 연결하는 순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펼쳐진다.

오는 23일까지 '개성: 이름 없는 색들이 모여'라는 주제로 열린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이다.

광주예술중학교 미술과의 회화 29점과 입체작품 11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지역 학생들의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창작의 의미를 확장해보는 자리다. 작품은 교실을 벗어나 전시장으로 옮겨지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관객과 마주한다. 전시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의 일부로 작동하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성장의 계기가 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보다 방향이다. 색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회화,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뒤뉘어 표현한 입체 작업 등 각기 다른 시도가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다. 일정한 틀이나 답을 찾기보다 각자의 감각을 탐색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품마다 시선

완성보다 '과정' 방침...광주예중 미술과 학생작 40점  
5월 2일부터 예고 한국화과·미술과전...전생애적 지원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이 5월 21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광주예중 미술과 전시 전경.

이 머무는 방식 역시 다르다. 어떤 작업은 색의 겹침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또 다른 작업은 형태의 분해를 통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솔직한 표현이 돋보인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완벽한 기술보다도 시도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관람객은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지금 만 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인상적"이라며 "과정을 들여다보는 전시라는 점에

서 색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은 ACC와 광주예술중·고등학교가 협력하면서 선보이게 됐다. 지난해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전시와 이어 올해는 중학교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예비 예술인 작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진행된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 총 93점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도약:

한 걸음 너머로'이라는 주제로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미술과 전시가 이어진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디자인, 만화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아우른 총 53점이 소개될 예정이다.

중학교 전시가 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고등학교 전시는 보다 확장된 표현과 탐구 과정에 방점을 찍는다. 표현 방식뿐 아니라 작업을 이어가는 태도에서도 한 단계 나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ACC가 추진하는 전생애적 예술 지원 정책으로 마련됐다. 예비 예술가에게는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신진 및 원로 작가에게는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꾀한다는 취지다. 특히 예술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상욱 전담장은 "이번 전시는 완성된 결과물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 전시"라며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CC는 하반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II'를 열어 호남권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들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참여 학과는 오는 5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글·사진=정재경 기자 view2018@

## 백남준 20주기 맞아 학술 심포지엄

아르코, 23일 오전 10시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세계적 비디오아트 스타인 백남준의 2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할 학술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코·ARKO)는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와 공동으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1932~2006)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백남준 이후의 백남준'(Paik After Paik)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국내외 주요 연구자 9명이 참여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백남준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동시대 예술·기술·문화 담론 속에서 그의 유산이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백남준을 하나의 완결된 역사적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기술 환경과 지식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동시대적 연구의 장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포지엄은 기초강연과 2개 세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 강연은 한나 히긴스 교수(시카고 일리노이대)가 맡아 1960년대 백남준의 실험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과 지식 생산 조건과 연결해 재해석한다.

제1부 '백남준 연구의 구조적 지형'에



백남준 이후의 백남준 Paik After Paik

서는 큐레이터, 미디어 이론,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연구 방법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며, 이숙경 관장(영국 맨체스터대 휘트워스 미술관), 레프 마노비치 특훈교수(뉴욕시립대 대학원 센터), 한나 페이스스 코디네이터

(스미소니언 미국 미술관(SAAM) 백남준 아카이브 컬렉션), 손부경 미술사 연구자 등이 참여한다. 제2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와 노동, 포스트 휴먼, 초국가적 문화 실천 등 21세기 담론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백남준 논의를 확장한다. 우정야 교수(포항공대), 더글라스 바렛 조교수(미국 시라큐스대), 이현애 학술연구교수(중앙대), 준 오카다 부교수(미국 에머슨칼리지)가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연구자와 기관,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백남준 연구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다. 아르코와 백남준아트센터가 2025년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추진되는 첫 공동 학술사업으로, 향후 아카이브 조사연구, 학술지 발간, 국제 연구자 교류 등으로 이어질 협력의 출발점이다.

심포지엄은 전석 무료로 공개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자세한 정보는 아르코(www.arko.or.kr) 및 백남준아트센터(njp.ggcf.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세월호·제주4·3·사북항쟁...

## 독립·예술영화로 마주하는 4월

광주독립영화관, 22일 특별상영·감독 참여 행사

세월호 참사와 제주4·3항쟁, 사북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조명하는 독립·예술영화가 상영된다.

(사)광주독립영화상인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제주4·3항쟁 78주기를 맞아 4월 한 달간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특별 상영 및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기록해 온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먼저 22일부터 24일까지는 박찬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신'(2014)이 특별 상영된다. '만신과 불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상영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참여 작가인 박찬경, 권병준 작가의 시인 참여 프로젝트 '불림'과 연계된다. 작품은 대표 무속인으로 불림 김금화(1931~2019)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령제를 직접 주재했던 그의 행적을 통해 기억과 애도의 의미를 되짚는다.

상영 첫 날인 22일 오후 6시30분 영화

상영 이후에는 박찬경 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불림' 프로젝트 설명회가 이뤄진다.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광주·전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제주4·3항쟁을 다루는 작품도 스크린에 오른다. 지난해 개봉 이후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은 '한관'은 이태에도 상영을 이어가며, 신규 개봉작인 '내 이름은' 역시 같은 주제로 24일까지는 박찬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신'과 함께 상영된다. '만신과 불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상영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참여 작가인 박찬경, 권병준 작가의 시인 참여 프로젝트 '불림'과 연계된다. 작품은 대표 무속인으로 불림 김금화(1931~2019)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령제를 직접 주재했던 그의 행적을 통해 기억과 애도의 의미를 되짚는다.

이와 함께 '1980 사북'은 1980년 강원도 사북 탄광 광부들의 생존권 투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현재까지 국가의 공식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 등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사북항쟁의 현실을 환기한다. 극장은 작품의 꾸준한 상영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기억할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광주 시민 찾아가는 야외공연 '당신곁에' 시작

문화재단, 5개구 거점 활용...지역단체 90% 참여 확대

광주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 상반기 공연이 본격 시작됐다. '당신곁에'는 매주 토요일 총 32회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공연이다. 상반기는 지난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4회, 하반기는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8회 진행된다. 공연시간은 일몰 시각을 고려해 상반기 오후 4시~4시 50분, 하반기 3시~3시 50분에 운영된다.

공연 장소는 5개 자치구 거점 장소를 활용한다. 첫째·셋째 주 토요일은 동구 문화센터·남구 물빛근린공원·광산구 수안호수공원, 둘째·넷째 주 토요일은 서구 상무시민공원·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이뤄진다. 상반기 공연은 동구 3회, 남구 3회, 광산구 2회, 서구 3회, 북구 3회로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공연은 지역(시민예술단 포함) 및 타지

역(경기, 서울) 예술단체가 참여하며, 대중음악·전통예술·댄스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예술인 활동 기회 확장을 위해 참여단체 32곳 가운데 시민예술단을 포함한 지역단체 참여 비율을 90%(3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참여 예술인 의견을 반영해 공연 현장 대기실 지원 등 공연 환경을 개선했다.

지난 18일 첫 무대는 동구에서 광주포크음악협회, 남구에서 광주시립창극단이 선보였고, 오는 25일에는 서구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 북구에서 광주시립창극단이 각각 공연을 펼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올해는 예술인 공연 환경 개선까지 반영해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고즈넉한 산사서 힐링음악회 열린다

화순 석천사, 25일 오후 6시 30분...김동규·알리 등 출연

고즈넉한 산사에서 음악회가 마련된다.

고려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전남 화순 소재 석천사는 화순군사임연합회 주최, BBS광주불교방송 주관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산사음악회'를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위로하는 한편, 공허한 내면을 채우는 동시에 물질에 경도된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어루만지면서 폭넓게는 문화향유를 꾀하는 자리로, 숲속 사찰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가슴들의 화음을 접하며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회 무대에는 가수 해바라기를 비롯 해 김동규·파트르루오레, 알리, 정태춘,



정수연(국악그룹 은가비) 등 대중가요는 물론 클래식과 국악 등 다양한 선율을 선사한다.

중현 스님(화순군사임연합회 회장·쌍봉사 주지)은 이번 산사음악회에 대해 "불빛이 산사에 머물고 바람마저 음악이 되는 계절이다. 고요한 산사의 품에서 자연과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8450-2345. 고선주 기자 rainidea@